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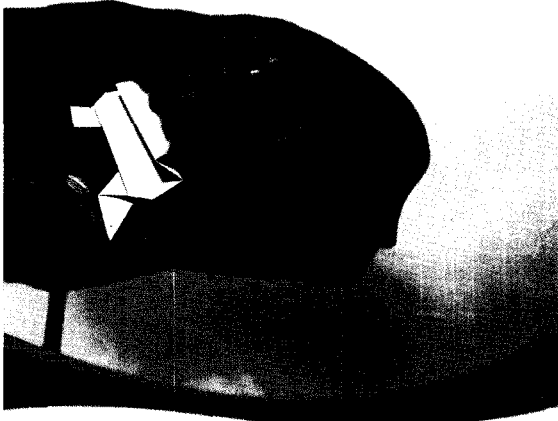
한솔제지 친환경 아트지 블루시리즈 출시

인쇄업계 친환경 경영 적극 지원

Hansol
한솔제지

종이소재 한솔제지

친환경 블루시리즈를 사용하면
“자연이 되살아납니다”



국내 최초 친환경 아트지 출시
기술이 없이는 환경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한솔의 기술력이 또 해냈습니다.

- (한솔의 환경사명)
- 1978년 국내 최초 폐지 재활용 시작
 - 1992년 신문용지, 그린백상지 환경마크 획득
 - 2007년 국내 최초 친환경 고급인쇄용지 출시
 - 2008년 FSC 인증 획득
 - 2010년 국내 최초 친환경 아트지 출시



제품 문의 : 인쇄용지 실수요팀 Tel. 02-3287-6388 Fax. 02-3287-6391

한솔제지(대표 권교택)는 최근 친환경 아트지인 블루시리즈를 출시했다. 블루시리즈는 GR(Good Recycled)인증을 획득했으며 HI-Q 블루아트 및 블루매트, 뉴플러스 블루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난 197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폐지 재활용을 시작한데 이어 신문용지, 그린백상지 환경마크 획득(1992년), 국내 첫 고급인쇄용지 출시(2007년), FSC인증 획득(2008년) 등 그 동안 축적되어 온 한솔제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원료배합과 특수 코팅과정을 통해 최고의 품질을 구현하게 된 것이라고 한솔제지는 전했다. 현재 HI-Q 블루아트/매트는 100g/m², 120g/m², 150g/m²의 3종류가 있으며 뉴플러스 블루는 70, 80g/m²의 두 종류가 출시되고 있다.

친환경은 선택 아닌 필수

한솔제지는 친환경재생 아트지인 블루시리즈의 개발을 결심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 나라의 문화수준과 비례하는 종이 사용량은 문화의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240만 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펄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30년생 리기다소나무 4790만 그루에 해당하는 양이며 금액으로는 해마다 12억4천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이제품 가운데 고급 면감과 백색도를 중요시하는 고급인쇄용지인 아트지의 경우, 국내 시장의 38%라는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펄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수년전부터 폐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설비 투자에 집중해서 재생펄프의 비중을 10%까지 높였으며 최근에는 그 비율을 30%까지 높이는 제품을 개발, 사용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투자와 제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급지종인 아트지를 친환경 재생지로 개발하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펄프를 대체할 수 있게 되어 국내적으로는 적지 않은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무역에서도 공급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폐지 1톤을 재생종이로 만들 경우, 대기오염 74%, 수질오염 35%, 공업용수 58%가 줄어들며 석유 1500리터, 전기 4200kw, 물 28톤, 쓰레기매립지 1.7m²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30년생 리기다소나무 20그루를 살릴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만큼 친환경적임을 알 수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종이,
환경을 생각하는 종이

한솔제지 친환경 재생용지



*Green The
Green More
Encore*

Hansol
한솔제지

한솔제지는 인쇄업계의 3가지 선순환을 가져와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친환경용지의 사용이 인쇄업계에 환경 보존, 기업 이미지제고, 매출증대의 3가지 선순환을 가져와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친환경 재생용지의 사용은 산림자원을 보존하게 되며,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으며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게 되어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일조하게 된다. 끝으로 고객에게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인식시켜 매출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했다.

한솔제지는 현재 시장에 잘못 알려져 있는 친환경 용지에 대한 3가지 오해들, 첫째 친환경 용지는 원가가 낮다(실제로는 설비투자, 추가공정의 필요, 생산성 하락으로 일반용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생산비용이 소요된다). 둘째, 친환경 용지는 인쇄품질 및 작업성이 나빠서 사용하기 어렵다. (한솔제지의 친환경 블루제품은 지난해 10월말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으로부터 GR(Good Recycled) 인증을 획득해 품질 우수성을 공인 받았다) 셋째,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에 해롭다. (종이 쓰레기를 매립, 소각할 경우에는 재활용에 비해 훨씬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며 재활용하면 1톤 당, 30년생 리기다소나무 20그루를 살릴 수 있다) 한솔제지는 순수 자체 기술로 생산, 공급하는 친환경아트지인 블루시리즈가 앞으로 인쇄업계의 사랑을 받아 순조롭게 시장을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친환경 재생용지, 인쇄업계의 3가지 선순환을 가져와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밝혔다.

친환경 재생용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재생용지 시장이 그 동안 예상에 비해 순조롭게 성장해오지 못한 것에 대해 한솔제지는 3가지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먼저, 재생지 시장의 성장이 더뎠던 이유의 하나로 제지사들의 투자가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종이 수요의 급증,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수준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순수펄프 제품이 아닌 재생지 등 친환경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에 다소 소극적이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소비자들의 인식도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품 제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친환경성 여부보다 당장 저렴하고 좋은 제품에 많은 관심을 갖는 소비행태로 인해 제지사들이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값싼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양산에만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런 현상을 조정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물론 이전에 비해 재생제품을 우선 조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할 재생지의 기준을 실제로 제지사에서 생산할 수 없는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하거나 수입 재생펄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체적인 기술개발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다.

한솔제지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제언으로 먼저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의 녹색구매정책의 기준을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제언으로 먼저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의 녹색구매정책의 기준을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폐지 사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10~3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고 품질인 아트지 제조에 있어서 현행 설비나 기술여건상 백색과 백감도를 유지하면서 폐지사용량을 50%까지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안료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코팅양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폐지를 사용한 아트지 생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코팅의 주원료인 탄산칼, 라텍스, 클레이 등은 친환경 물질이기 때문에 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코팅량은 폐지사용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코팅량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한솔제지의 설명이다. 또한, 현재 수입재생펄프의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것을 국내 자가원료로 한정해 국내의 자원재활용률을 높이는 한편으로 국내 용지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설비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순수펄프에 비해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재활용에 따라 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재생제품의 한계를 친환경과 미래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해 단기적인 경제성을 벗어나 정책적인 안목에서 이를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방향성은 재생제품의 품질기준을 완화하고 높은 가격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요약된다.